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13화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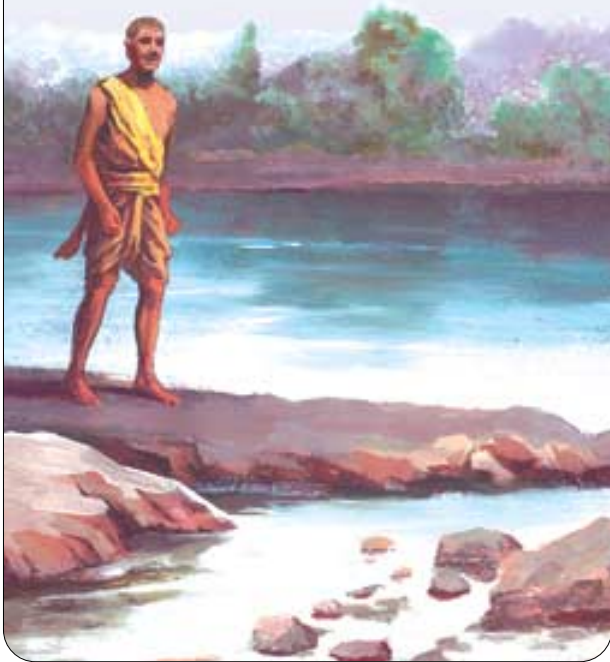


빔 비사라 왕의 일행이 되돌아 가버려서 싯다르타는 다시 알라라칼라마 선인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았다.

문제는 비록 미세하나마 '나(我)'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싯다르타는 알라라칼라마 선인에게 구닌(Gunin: 물체)과 구나(Guna: 속성)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마치 따뜻함이나 불빛이 모두 불이 있으므로 해서 존재하는 것인바 불이 없으면 따뜻도 없고 따뜻함도 같이 없게 되어 다 같이 있든지 다 같이 없든지 한다는 뜻으로, 불 자체를 부정하면서 따뜻이나 불의 열기의 존재만 말할 수 없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천지를 헤매면서 높은 스승을 만나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해 보겠다는 싯다르타의 꿈이 어찌 허망해 보였나. 알라라칼라마 선인 같은 사람이 한평생을 다 바쳐 깨달은 도가 겨우 그 정도라면 나는 과연 얼마나 더 긴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것일까? 지금 인도 천지엔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 만큼 명성을 얻고 있는 선인은 없다.

마침내 결심을 내리고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을 찾아 발걸음을 옮겨갔다.



윗 타카 라마푸타는 라마(Rama)족 사람으로 슈바(Siva)를 모시는 루드라카(Rudrakal)의 손자였다. 루드라카는 성선(聖仙)으로 그의 가르침이 윗타카 라마푸타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승 없이 홀로 깨달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강력한 마가다 국의 선인으로서 그의 명성에 걸맞게 7 백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뜻밖에 사카족의 왕자를 맞은 윗타카 선인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하였다. 싯다르타의 소문이 어느새 이곳까지도 퍼져 있었던 것이다.

슈바(Siva)의 영향을 받은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은 요가의 수련법도 같이 행하고 있어서 이곳의 분위기로 보아 이번엔 무언가 크게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인 앞에 공손히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다.

"생사윤회(生死流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려면 열반(涅槃, Nirvana)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그것은 요가(Yoga, 禪定)속에서 가능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수련을 쌓아야 하는 것이로다."

"요가라면 결국 선정(禪定, Samadhi)을 말씀하시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 알라라칼라마 선인으로부터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을 배워 이미 그 정도의 경계까지는 도달하고 있습니다. 들건대 스승께서는 이미 무소유처정을 뛰어넘어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라는 선정삼매(禪定三昧)까지 도달해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비상비비상처가 즉 해탈의 경지라 하시면 이 사문(沙門, Sramana)도 뒤를 이어 열반에 오르고 싶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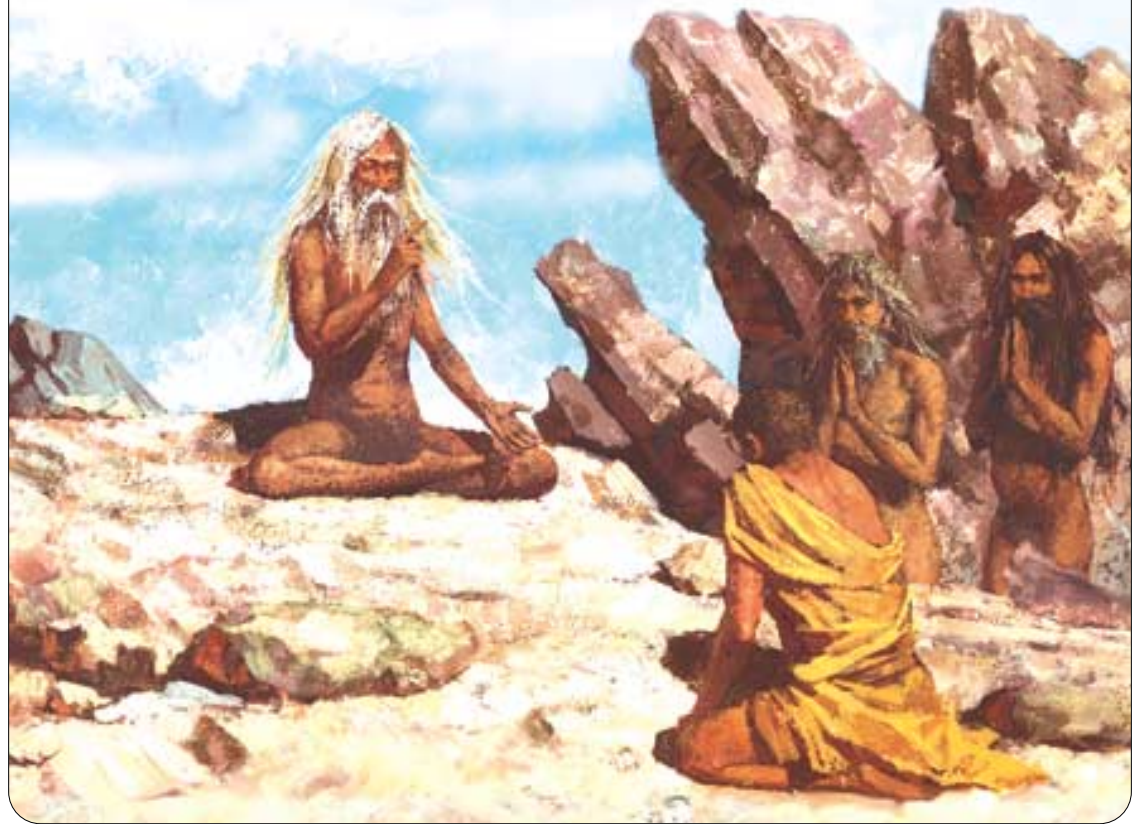


그 러면 인도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윗타사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윗타(輪廻)란 글자 그대로 돌고 돌아 한없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사람은 죽은 후 그 생전에 행한 보상으로 천당이나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삶과 죽음이 반복되니 결국 윗타는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한번 죽음으로 만사가 끝나면 좋은데 몇 번이고 생로병사를 반복해야 하고 또 사후에도 지옥을 속에서 허덕여야 한다면 생각만 해봐도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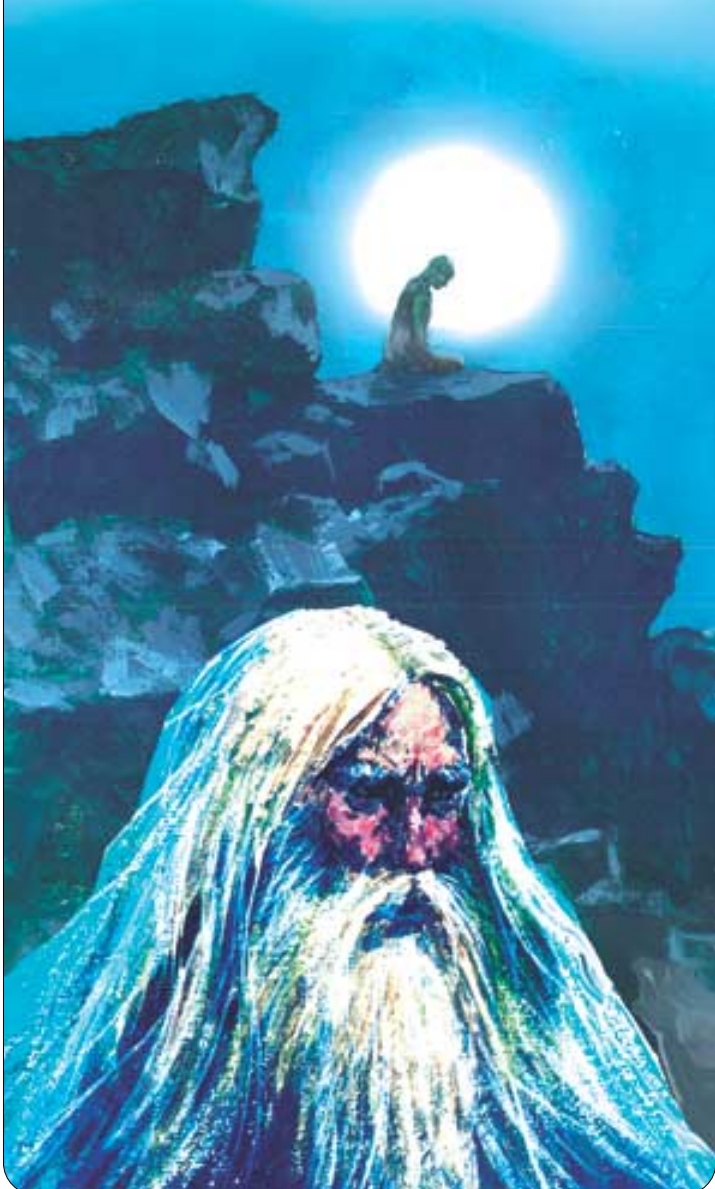
"윗타(輪廻)상태에 있는 생물 중 특히 사람은 마치 마차의 운전인과 같아서, 마차를 끌여주는 말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수레는 육체와 같은 것이다. 마음이 흔들려 험한 길로 가게 되면 육체는 그저 마음이 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馬, 마음)과 수레(肉體, 육체)를 함께 매어두는 것이 요가(Yoga, 요가)이니 우선 목마로 다리를 걸고 앉아 호흡을 조절하고 정신을 통일하여 좌선(坐禪)에 들어간 다음 명상을 방해하는 일체의 상념을 없애고 공간은 무한대임을 사유하면 공무변처(空無邊處)에 이르고, 공간을 넘어서 의식이 무한대에 이르면 식무변처(識無邊處)에 이르며, 그 위에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까지 명상이 이르렀을 때 소위 무소유처(無所有處)의 경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사카족(Sakya)의 왕자를 가르쳤다는 알라라칼라마 선인이 해탈에 있는 경지로 아직까지 해탈(해탈, Vimoksa Vimukta, Mukti)의 경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선정을 뛰어넘어 최고의 경지인 완전한 무상(無想)의 명상법에 도달하였으니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이제야 비로소 열반(涅槃)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다음은 무엇을 어찌해야 좋은지 나 자신도 알수가 없구나. 모든 사고를 초월하여 순수한 사상만을 남긴 상태로 모든 사람들의 최고 소망인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도달하고서도 그 다음의 갈 길을 잃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은 것인가?"



스 승께서 선정삼매의 최고단계까지 오르고서 아직도 다음 길을 몰라 또 다시 번뇌(煩惱, Klesa)속에 빠지셨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해탈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하셨다는 증거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부터 노력하여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스승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싯다르타는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의 지도를 받으며 그가 도달했다는 비상비비상처에 이르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며칠 후, 싯다르타는 마침내 그 선정을 성취하는 희열을 맛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로서 윗타카 선인이 평생을 바쳐 겨우 이를 수 있었던 경지를 불과 며칠의 노력으로 그 경계에 진입하였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싯다르타는 완전한 무상(無想)에 도달함으로써, 과연 생로병사의 윗타를 초월할 수 없음도 깨닫게 된 것이다. 역시 스승의 말씀처럼 아직도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해 사람들을 고통의 수렁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싯다르타는 당대에 유명했던 알라라칼라마(Alarakalama)선인과 윗타카 라마푸타(Uddakaramaputta)선인의 두 스승을 모셨으나, 그들이 도달했다는 선정법(禪定法)의 한계 때문에 죽음(死)과 삶(生)을 초월하려는 그의 소망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스승들은 후일 싯다르타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전수해 주었으니, 그 첫째는 요가의 좌선법(坐禪法)이요, 둘째는 단식법(斷食法) 등이었다.

싯다르타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본 윗타카 라마푸타 선인은 역시 알라라칼라마 선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교단에 남아 같이 제자들을 가르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것은 싯다르타의 출가목적과 동떨어진 것으로 결국 그곳을 이별하고 산을 내려와 보드가야(Bodhgaya)에 이르러 먼저 나이랄자나(Nairabagam)강 가까이 있는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이 제부터 나는 완전한 해탈을 얻을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싯다르타는 굳게 다짐하며 우선 목마로 요가(Yoga, 결기부좌)의 좌선법을 취하고 몸과 입과 마음마저도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 후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호흡을 억제하였다. 목안은 역기로 가득차고 겨드랑이 밑에선 땀이 흐르고 이마에서도 구슬같은 땀이 비오듯 흘러 내렸다. 호흡을 막으니 양쪽 귀에 커다란 진동이 일어나며 풀무와 같은 소리가 났다. 귀와 코와 입으로 모든 호흡을 동시에

막아버리면 몸 안의 바람이 머리꼭대기에서 충돌하며 큰 소리를 울리는데 마치 예리한 칼로 베는 것 같은 이음을 머릿속에서 느끼게 되었다. 호흡을 아주 몇 개 해버리면 몸속의 바람이 양쪽 겨드랑이 사이를 사납게 불어 닦아내며 당장 몸이 산산히 흩어져 버릴 것 같았다. 또 바람이 격심해지면서 몸속이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배운 모든 호흡법을 다 이용하며 고행의 마을 연 것이다.

